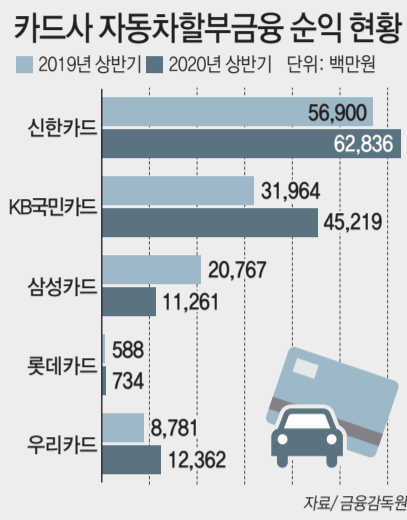


‘황금알’ 車 할부금융시장, 쫓기는 신한 쫓는 KB ‘2강 구도’

5개 카드사 車 할부금융 순익 1324억
 지난해 1190억 대비 11.27% 상승
 KB국민, 작년 동기비 41.47% 증가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금융부문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신한카드와 이를 바짝 쫓고 있는 KB국민카드 두 회사의 ‘2강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할부금융을 서비스하는 5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우리·롯데카드)의 자동차할부금융 순이익은 13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1190억원 대비 11.27% 상승한 것이다.

카드사별로 1위와 2위를 차지한 신한·KB국민의 2강 체제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의 순익 증가세

가 매섭다. KB국민카드는 올 상반기 자동차할부금융 순익이 452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41.47% 증가했다.

올해 초에는 중고차 할부 금융 특화 영업점 ‘오토 금융센터’를 오픈하는 등 자동차 할부금융 확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 들면서 회사에서 신사업 측면에서 자동차할부금융 부분의 강화가 이뤄져왔다”며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역시 자동차할부금융을 주요 수익원으로 여겨 사업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까지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628억원의 순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569억원보다 약 10.43% 증가했다. 지난 7월에는 자동차 관련 혜택을 담은 ‘신한카드 마이카’를 통해 자동차 구매, 주유, 정비 등의 자동차 관련 혜택을 담은 카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두 회사가 차지하는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자산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5개 카드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자산은 총 8조2838억원으로, 선두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78.28%로 지난해 같은 기간(73.88%)보다 약 4% 포인트 가량 늘었다.

선두그룹과의 격차는 벌어졌지만, 후발주자들 역시 자동차할부금융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카드와 롯데

카드의 올 상반기 자동차할부금융 자산은 9140억원, 62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1.54%, 79.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익에서도 우리카드가 123억원, 롯데카드가 7억원 가량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각각 40.78%, 24.83%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자동차할부 금융의 장점으로 카드사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 활용할뿐만 아니라, 자동차할부를 이용하는 동안 카드를 꾸준히 유지하는 ‘락인 효과’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명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생보사 외화보험 판매 5.5배 ↑... 건전성 우려 우수 중소기업 온택트 판로개척 지원

금감원 국감

올해 상반기에만 7575억 규모 판매 장기적으로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생명보험사의 외화보험 판매가 3년 반만에 5.5배 증가했다.

외화보험의 경우 외국 금리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생보사 건전성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 수수가 달러 등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보험료도

달러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을 수 있다.

1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생보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규모는 3조2375억원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금액은 3230억원에 그쳤으나 2018년 6832억원, 2019년 96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이 판매됐다.

특히 외화보험은 저축성 외화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생보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금액은 2조7575억원이다.

지난 2016년 말(5049억원)과 비교해 446% 급증한 수치다.

국고채 10년 금리가 1.5%,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8% 수준인 상황에서 최근 판매되는 저축성 달러보험의 금리가 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저축성 보험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 보험사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의원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증가로 생보사의 단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건전성이 악화하고 환율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10개 기업 제품 홍보영상 제작

IBK기업은행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택트(Ontact) 판로지원을 위해서 울산산업진흥원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10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지난 5월 참가희망 기업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외부전문 MD들로 구성된 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 기업들이다.

기업은행과 서울산업진흥원은 홍보영상을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등에 계



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들은 ‘나만 알고 싶은 꿀템’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유튜브에는 영어자막 영상, 웨이보에는 중국어 자막 영상도 게시해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또 오픈마켓인 G마켓에서 25일까지 ‘ON서울마켓’이라는 특별기획전도 진행한다. 기획전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해당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나유리 기자

하이에어 항공 으로 출발!!!

남해안 주요 명소 관광 알찬 2박3일

(사천/거제/통영/남해/여수/순천)

항공을 이용한
특가 여행

최소출발 5명부터
단독 출발 가능

14명부터는 28석
리무진으로 편한 여행

숙소는 전객실
오션뷰(바닷가 객실)

노팁!! 노쇼핑!!!
노음선!!!

주중 | **298,000** 원 (2인1실) | 주말 | **318,000** 원 (2인1실) | ▶ 목/금/토요일(매주 3회 출발)

·포함: 왕복항공, 현지 전용차량, 펜션 숙박(오션뷰) 2박6식 제공, 관광지 입장료, 케이블카, 유람선, 기사/가이드 수고비 ·불포함: 2일차 석식, 개인경비, 여행자보험 ·준비물: 신분증 ·숙소: 남해 갯마을펜션(www.gmpension.co.kr), 여수 오션힐호텔(http://oceanhillhotel.co.kr/)

여행 BIG 6

항공여행 김포 - 사천 왕복항공으로 품격여행

섬과바다 바다의 금강산 거제 해금강 유람선 / 외도 보타니아 / 여수 오동도

산과여행 남해의 소금강, 금산과 보리암

체험여행 바다 위를 통과하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낭만여행 바람의 언덕 & 신선대 / 통영 동피랑벽화마을 / 독일마을 / 다랭이마을 / 순천만 국립공원 / 갈대밭

맛과여행 거제 매운탕 / 남해 갈치조림 / 멸치쌈밥정식+회무침+생선구이 / 순천 고막정식+뽕뽕어탕 - 특식 4회

하이에어

경상남도 GYEONGNAM

경상남도관광협회 GYEONGNAM TOURISM ASSOCIATION

아이앤디투어 INDTOUR.co.kr

여행상담 문의 | 02-730-3711